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장애인주일 메시지

## 균등(均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갑자기 다리를 못쓰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집 대문을 나오며 버스를 어떻게 오를 것이며 교회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서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를 걱정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 찬송은 어떻게 보고 길은 어떻게 찾으며 버스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갑자기 귀가 막힌다고 해봅시다. 설교도 찬양도 못 듣고 다른 이와 대화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나와의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에 별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도와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편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은 대개 국민의 10%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585,000여 명으로 장애인이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현재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전체 취업자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장애인의 67.4%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에 불과하여 2005년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국 인구대비 취업률인 60.9%에는 여전히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자랑하고 문명국이라고 떠들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보면 후진국이요 야만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애인(병든 자)과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많이 탄감 받은 자가 적은 빛을 탄감해 주지 않는 그런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남의 고통은 무시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은 사회전체의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가 후천성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장애인은 덕을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균등케 할 것을 가르칩니다. (고후 8:9)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유자는 부자유한 자에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이에게 나누고 도와 균등케 하라(고후 8:13)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조금 더 불편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장애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 이종윤



지난 4월 1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있었던 사랑부 학생들의 특별 찬양

# 아마니콰이어 특별찬양

## - 오늘 찬양예배 시 -

서울교회에서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가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을 드린다.

지난 4월 3일(수)에 24명이 입국하여 한국일정을 진행 중이며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을 드리고 1일 홈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마니콰이어는 12세부터 17세 소녀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의 아프리카 음악을 이끌어 갈 훌륭한 리더들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아마니콰이어는 5월 2일(목)에 출국할 예정이다. 아마니콰이어의 남은 일정동안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란다.



# 진중세례식

## - 육군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 5월 4일(토) 오후 2시, 십자군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5월 4일(토) 오후 2시에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십자군교회에서 육군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진행한다. 출발은 5월 4일(토) 오전 7시 교회에서 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석 바란다.



# 다락방보고서 교회 홈페이지 서비스 재개하다

박노철 목사가 용역을 동원하여 교회를 불법 점거 후 교회 홈페이지까지 교회직원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다락방 보고서를 위한 교회 홈페이지 서비스를 다시 재개한다.

다락방장은 모임 후 서울교회 홈페이지(iseoulchurch.or.kr) 첫화면 '다락방 보고'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천기성 정복순 유명석 조응식 장창수·박혜정  
유성택·권진순 김현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2019 순결서약식 거행하다

2019년 순결서약식이 지난 주 부활절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반지"가 주어졌다.

이번 순결서약식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중1: 임세아 오유나 이인애

중2: 임하린 정은지 장유선 장해윤 홍지유

총 : 8명



# 2019 성경암송대회

##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 임시당회 무산되다

## 법원을 무시한 채 노회의 지시만을 받으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 권력화 된 종교기관이 법치 불신을 키우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일 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2019년 4월 12일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그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에 따라 당회는 박노철 목사를 따르는 장로 5명에게 4월 21일(주) 오후 6시 30분 4층 가이오실에서의 당회 개회를 알리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21일, 지난 주 찬양 예배 후 당회원들이 당회 개회를 위해 2층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박노철 목사 측이 고용한 용역들과 사람들이 진입을 막아 당회가 무산되었다.

이에 다시 서울교회 임성한 장로 외 11명의 과반수 당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변호사는 임시당회 소집을 박노철 목사 측 장로들에게 통고하였다. 두번째 임시당회는 2019년 5월 1일 오후 8시 20분 수요일 2부예배 후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 측과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이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선임된 강대성 변호사는 우리 장로교단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 담당재판부에서 대한변협에 장로교단 소속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추천의뢰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직무대행자선임 건은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후 서울강남노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서울교회에 그대로 맡겨 두었으면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다.

또 서울강남노회가 그동안 소속 지교회인 서울교회건에 대하여 편파적인 부당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당연히 대한변협이 아닌 소속노회에 직무대행자 추천의뢰를 했었을 것이다.

결국 서울강남노회 스스로 자초해 놓은 문제를 이제 주위 담기 힘들게 되자 교단법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막 던지는 식의 행태로 자신들을 합



“  
법원도  
종교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체 내부에서도  
당회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 때문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고  
그 직무범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

리화 하려는 모습이 참 한심하기만 하다.

심지어 법원은 서울강남노회가 파송한 이태종 목사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순간 그 권한이 상실되었다는 분명한 판단까지 하고 있음을 볼 때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하며 감히 교회의 거룩을 논할 위치도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

또 직무대행자가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목사 고유의 영역까지 대행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설교나 성례집행 등까지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당회를 통해 이를 담당할 목사를 정하는 것이 그 대행자의 역할일 것이다.

서울강남노회나 박목사 측은 심지어 교회사건에 선임된 담임목사 직무대행자는 목사가 아니므로 당회도 소집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정치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장로교단에서 지교회는 최고 치리기관인 당회 결의가 없으면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종교적, 신앙적 행위에 관하여는 직무대행자가 예배주관권을 가진 당회결의를 통해 그 직무를 담당할 적합한 목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도 종교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체 내부에서도 당회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 때문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고 그 직무범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서울강남노회는 직무대행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노회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한 업무도 노회와 협의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자는 관련법상 자신을 선임한 법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직무대행자에게 법원을 무시한 채 노회의 지시만을 받으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고, 권력화 된 종교기관이 법치 불신을 키우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일 뿐이다.

서울강남노회의 방자함과 오만불손이 도를 넘어섰다. 그것이 오로지 '박노철 지키기'를 위함이라는 것에는 할 말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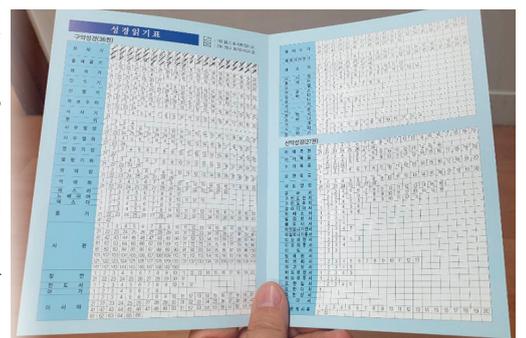
지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를 망치며 스스로 장로교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있어 과연 교회분쟁에 있어 노회와 총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심히 혼돈스럽기만 하다.

**전 성도 성경읽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1/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새해에 결심하셨던 「전 성도 성경읽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못하신 성도님, 시작하셨다가 중도 포기하신 성도님, 모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성도 성경읽기」를 하실 성도님들을 위해 일년통독 성경읽기표가 웨스트민스터 흠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독, 2독 마치시는대로 교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표는 매 주일 순례자에 기재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①~⑤ 지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거행한 성찬식  
 ⑥, ⑦ 찬양예배 시 거행한 순결서약식  
 ⑧~⑪ 찬양예배 특별찬양 임마누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예수'

사진 : 이준태 집사

동정



■ 연주회 : 7교구 안효주 선생(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성공회 정오음악회」 5월 1일(수) 낮12:20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금주의 식사 : 김재중 집사 김유경 권사 가정 (외손자 도현이 첫돌 감사) 잡채밥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5월 4일(토) 거행될 제3사단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군선교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2.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케냐)가 지도하는 아미니콰이어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5월 2일(목) 출국하는 날까지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3. 교회 회복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법과 진실을 토대로 바르게 진행되도록

4.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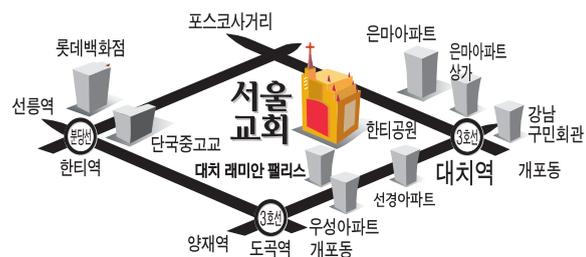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29일	월	왕하 18-19		렘 33-40	
4월30일	화	왕하 20-22		렘 41-49	
5월1일	수	왕하 23-25		렘 50-52	
5월2일	목	대상 1-2		애 1-5	
5월3일	금	대상 3-5		겔 1-11	
5월4일	토	대상 6		겔 12-17	
5월5일	주일	대상 7-8		겔 18-2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